

수산식품단지, 육상김 양식 메카로

‘육상 김 용·복합 집적화 단지’ 구축 추진... 연중 생산·체계적 품질 관리 가능 김 산업으로 지역 어업인에 안정적 추가 수입원 제공·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군산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의 교두보 기업인 (주)풀무원과 손잡고 미래 신산업 육상 김 양식 집적화단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한국 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2년 연속 1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수산식품단지’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은 지구 온난화와 해양 오염으로 김 양식에 적합한 환경을 맞추기 까다로워지면서 나온 해양수산부의 신규 과제이다.

무엇보다 김 산업 세계 1위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할 나위 없이 절실한 연구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수산식품단지에 김 육상양식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킨 풀무원이 해양수산부 국가공모에 선정됐다.

지난 2월에는 새만금개발청, 김 생산자 단체·수협, (주)풀무원, 그리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함께 ‘김 육상양식 기술의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앞으로 조성될 육상 김 융복합단지는 국가공모를 통해 획득한 육상 김 양식

기술을 이전받아 추진될 예정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김의 생육 환경을 바다와 유사하게 조성한 ‘바이오리액터(생물 반응조)’라 불리는 대형 수조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이물질 없이 철저한 품질 관리 아래 사계절 내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성과를 통해 군산시는 수산식품단지를 통해 △연중 마른김 생산 기반 마련 △양식이 새 신규 수익 창출 △기후변화 및 고령화를 대비한 선제 대응 △김 산업의 체계 전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기후변화와 고령화를 대비한 미래형 산업 캠퍼스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한 육상 김 용·복합 집적화 용지를 조성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지역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을 제공하고, 군산시 전체의 산업 경쟁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 전에는 일부 어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지만, 해상양식의 불안정한 생산량

과 물길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했고 다행히 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시의 다각적인 노력과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의 입주로 수산식품단지는 세계 육상 김 양식 산업을 선도하고 관련 미래 신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시는 국립군산대의 해양바이오 성능시험장과 연구역량, 새만금개발청의 글로벌 푸드 허브(국제적 식품 연계망), 풀무원의 식품에 대한 가치와 사업 기술, 군산시의 지역 기반 행정 지원 등을 하나로 합쳐 새만금을 국제화 식품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 종합단지는 군산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어업인과 상생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산시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 육상 김 단지 조성으로 대한민국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부산세계시민축제서 ‘인기’

고군산 K-관광섬·시간여행축제·짬뽕페스티벌 등 적극 홍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 소개해... 1만5000여명 방문객들 ‘관심’

군산시가 지난 24일 ‘제20회 부산세계시민축제’에 참가해 K-관광섬과 군산의 대표 축제 및 관광지를 15,000여 명의 세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

‘제20회 부산세계시민축제’는 국내에 거주 다양한 국적·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세계 시민이 서로 소통·교류·화합하는 대표적인 세계문화 축제이다.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와 법무부가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주관한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에서 세계인이 가고 싶은 K-관광섬과 군산의 대표 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짬뽕 페스티벌’, ‘군산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 자원을 소개했다.

이 중 군산시의 K-관광섬 육상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세계인이 찾고 싶은 명품 관광섬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에 개설 중인 해상인도교를 기반으로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주민들에게 관

광서비스 의식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속속 개통 예정인 말도-명도-방축도 해상인도교와 함께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다리로 건널 수 있는 ‘고군산 해상 트레킹(걸기여행) 코스’는 방문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군산 K-관광섬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 해상인도교가 정식 개통되면 눈에 직접 담고 싶으며 꼭 방문하겠다.”라고 말했다.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시간을 테마로 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군산의 대표 미식축제인 ‘짬뽕 페스티벌’ 역시 ‘복고적인 매력’이 가득한 ‘군산’로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줬다. 이외에도 군산의 다채로운 축제와 관광지는 큰 인기를 끌었다.

마지막으로 시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군산수제맥주&블루스페스티벌’도 소개하며 전국 수제맥주 열풍의 중심인 군산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누리집 개편 착수

익산시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익산시 누리집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익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누리집 전면 개편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개편 대상은 익산시 대표 누리집을 포함한 총 20개 웹사이트로 문화관광, 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옹호관광캠핑장, 통합예약시스템, 교도소 세트장 등의 누리집이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누리집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8개월 간 진행된다. 개편의 핵심은 디자인과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스마트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응형 웹 구현 △통합검색 기능 강화 △카드결제 기능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 간편화 △사회적 약자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 탑재 등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보건소, 제11기 생명사랑 서포터즈 활동

군산보건소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활동을 위한 제11기 생명사랑 서포터즈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재 군산시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강사 서포터즈 25명, 일반인 서포터즈 57명 등 총 8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 서포터즈는 ‘자살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군산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인 서포터즈는 군산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참여했으며 △현장 밀착형 활동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수단 접근 차단을 위한 설치물 △자살위기가 발발 및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생명 존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 상황 대응 역량 강화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풍수해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익산시청, 익산소방서, 익산경찰서, 제9585부대 3대대, 제7557부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 총 17개 기관·단체에서 25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풍수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집중호우 발생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으며 △취약성 파악 및 대비 △실제와 같은 재난 상황 훈련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천배수펌프장 일대 사고 현장을 이인 중계하는 방송으로 진행됐다. 재난 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녹차밭 숲속문화제’ 성황리 종료

초등학생 150여명, 다도·에코 트레킹·목재공예 등 오감 체험

우리나라 최북단 녹차밭에서 자연이 교과서가 되고, 숲이 교실이 되는 하루가 펼쳐졌다.

익산시는 23일 옹포면 함라산 일원에 위치한 야생 녹차나무 군락지를 배경으로 ‘숲속문화제’를 열고, 지역 초등학생 150여 명과 함께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 지원으로, 익산 산림조합(조합장 김수성)이 주관해 익산 산림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보고, 만지고, 만드니, 느끼고, 배우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한반도 최북단에서 자란 야생 녹차를 활용한 차 만들기부터 다도 체험, 숲길을 걸으며 생명의 순환을 느끼는 에코 트레킹, 공기정화 식물 화분 식재, 녹차 디저트 만들기 등 풍성한 체험을 했다.

또한 국산 천연 목재를 활용한 목공



예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나무 보석함과 문패, 갑반침, 편백 방향제 만들기 등을 통해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고, 탄소발자국 줄이기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행사가 열린 함라산 일대는 국립 익산 치유숲의 숲을 중심으로하는 명품 임도, 녹차밭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웅포 품개나무 △용안생태습지공원 △공공공생마장 △교도세트장 등 관광지와의 연계가 가능해 교육·관광 복합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성지혜음길, 다이로운 익산여행’ 출발

원불교 총부·미륵사지·두동교회·나바위성당까지 1박 2일 여정

종교와 문화, 치유가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 익산의 대표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2025 상반기 성지혜음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지난 23일부터 다시 짧은 여정에 나선다.

‘성지혜음길,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2022년부터 운영돼 큰 호응을 얻은 ‘4대종교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익산의 대표 종교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다음달 1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총 4회차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운영 요청에 따라 ‘성지혜음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여행으로 돌아왔다.

여행은 익산역에서 출발해 △원불교 총부 △미륵사지 △두동교회 △나바위성당 등 익산의 주요 종교 성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각 장소에서는 신앙과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참여자들은 명상 체험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삶을 성찰하며, 성지 순례길을 걷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경험하게 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양한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치유의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특히 가족, 친구와 함께 조용히 걷고 생각하며 삶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큰 사랑을 받아온 다이로운 익산여행이 시민들의 기대 속에 다시 출발하게 돼 기쁘다”며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치유 여행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